

정청래, 與 당대표 유력... 국힘 '해체몰이' 시간문제

그동안 정치 공세로만 여겼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해체'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며 오는 9월 정계복귀를 예고하고 있어, 야권 내 권력 지형 분화가 점차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당대표 유력 주장인 정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윤석열 파면, 정청래 당대표 때 내란당 해체,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며 당대표 당선 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21일 SNS에 "국민의힘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내란특검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박 당대표 후보, 황 최고위원 후보,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사실상 시간 문제, 정해진 수순,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두고 보시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단지 선거용 멘트나 아닌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을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 의원은 앞서 20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당은 해체시켜야 한다"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鄭 "내란특검 기소·재판하면 해산청구 분위기 될 것" 野 비난 여론까지 가세하면 입법 일사천리 불 보듯 9월엔 홍준표 신당 예고... '모래성' 국힘 붕괴 위기

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준비도 진행 중이다.

홍 전 시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난 파산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을 보면 참 가엾다.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 명을 소환할 것"이라며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장을 그대로 두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보조금은 끊고, 페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국정 농단기 특검 수사 결과로 현실화 되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당이 온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입법 처리에 걸림돌이 없는데다, 국민적 비난 여론까지 더해진다며 추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나, 판단하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검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함께했던 국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운' 대 '반운'으로 갈라진 국민의힘이 내달 전당대회를 계기로 스스로 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인 양 진영 간 갈등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이 9월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이와 맞물려 야권 내 정계 개편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혁신의 핵심은 그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재산은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천운, 친한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너들이 참 딱하다"고 말해 정계 개편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드러냈다.

22일에는 자신의 소문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9월 초부터 홍카콜라를 재개할 것"이라며 "해산될 정당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내부 총질자들'이라며 자신을 비판한 장동혁 의원에 대해 "당 내부에 수류탄을 꺼서 던지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나경원, 구치소 들락... 장동혁, 내부에 수류탄" 윤희숙의 반격

"전한길 계엄옹호'에 지도부, 선명한 입장내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내부 총질자들'이라며 자신을 비판한 장동혁 의원에 대해 "당 내부에 수류탄을 꺼서 던지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장동혁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한 건 '당이 사과할 필요 없다. 정당하다는 말이다'며 "이는 당을 탄핵의 바다 깊은 곳에 계속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내부 총질이 아니라 당 내부에 수류탄을 꺼

서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의원은 21일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 위원장을 겨냥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밝힌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하고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

는 게,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해)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있던) 구치소나 관저를 들락날락하면서 계엄당의 이미지를 만든 분 중 한 분"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무슨 사과를 하냐"고 말했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논란에 대해 "분명(전유관)이 따로 있어 입당 과정에서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당원이 된 후 토론 등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하지만,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리스크코리아 갔다고 비난받자 '몰라서 갔다', 전한길 강사 입당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가 비난받으니가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분의 입장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지

는 것이 우리 당에 생존이 도움이 되느냐는 지도부의 선명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별일 없으면 그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안에 잘 안돼서 고민이 많겠다'는 진행자 말에 "혁신안을 발표한 지난 10일 이후 현재까지 전당대회 후보들 간에 혁신이나, 아니면 수구, 극우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불이 붙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사실 당의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가 무시를 당한다거나 고사되고 있다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혁신위의 원래 역할이 훨씬 더 확대된 것이다. 불이 오려면 더 크게 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